

3월 새 규정, 우리 생활에 어떤 새 변화가 있을까?

—3월부터 6개 새 규정 실시

3월부터 실시되는 일련의 새로운 규정들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래에 살펴보기로 하자.

◆ 재래시장의 ‘근수부족’ 현상 다스린다

개정된 〈재래시장 계량 감독관리 방법〉이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방법은 경영자의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속임 기능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경영자들에게 요구하는바 경영자가 속임 기능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여 사기를 구성하는 경우, 소비자권익보호법의 ‘하나를 환불하고 세배를 배상하는’(退一赔三)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시장 주회자의 주체적임을 강화하는바 시장 주회자는 공정한 검토를 위한 계량기를 갖추고 이를 눈에 띄는 편리한 위치에 배치해야 하며 계량에 문제가 있을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영자에게는 계약 위반 책임을 물음뿐더러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다.

◆ 신에너지 자동차 년례검사 새 규정 시행

중국 첫번째 신에너지 자동차 년례검사 규정인 〈신에너지 자동차 운행 안전 성능검사 규정〉이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규정은 동력배터리 안전충전 검사와 전기안전 검사를 필수 검사 항목으로 지정했다. 또한 구동 모터, 전자 제어 시스템 및 전기 사용 안전 등 차량의 핵심 전기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했다.

◆ 전기자동차 전력공급장비에 대하여 강제성 제품 인증 실시

〈전기자동차 전력공급장비의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에 관한 시장감독관리총국의 공고〉에 따르면 비교적 높은 안전 위험을 가진 전기자동차 전력 공급장비를 강제성 제품 인증 목록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흔히 볼 수 있는 고정충전소, 이동식 충전시설, 차량별 충전장비 등이다. 3월 1일부터 관련 인증기관이 인증 의뢰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 문화재 보호법 새로 개정, ‘조사후 건설’ 및 ‘발굴후 양도’ 제도 명확히

3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 안에는 ‘조사후 건설’, ‘발굴후 양도’ 등 제도가 명확히 규정되어있다. 또한 지하문화재 소장구역과 수중문화재 보호구역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문화재 소장 기관은 반드시 “차용, 교환, 온라인 전시 등의 방식을 통해 소장 문물의 리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 고목과 명목(名木)의 벌채와 이식 엄격히 제한

〈고목명목보호조례〉가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그중 벌채 및 이식을 엄격히 제한했는데 긴급구조 및 재난 구조와 같은 특별하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목 및 명목의 벌채를 금지한다. 법률에 따라 긴급 조치를 취하여 고목 및 명목을 벌채하는 경우, 제때에 보고해야 하며 고목 및 명목의

이식은 원칙적으로 원 장소 보호를 실행하는바 이식해서는 안된다. 국가급, 성급 중점 건설 프로젝트 등의 부지를 선정할 때 고목과 명목을 피할 수 없고 고목과 명목의 성장 상태가 대중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이식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엄격한 심사비준 절차를 규정했다.

◆ 국가통용점자판 국가 등 언어 문자 규범 실시

〈중화인민공화국국가) 국가통용점자방안〉과 〈국가통용수화 수준 등급 기준 및 시험요강〉 언어 문자 규범이 3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되고 있다. 방안은 시각장애인이 참석하여 국가를 연주하거나 부르는 자리에 적용되며 시각장애인이 국가를 규범적이고 통일적이며 엄숙하게 연주하고 부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요강은 국가통용수화 수준 시험에 적용되는바 이는 수화의 규범화, 표준화, 정보화 건설의 중요한 조치이다.

/ 신화사

연길, AI 학습으로 장애인 소득 증대 위한 새로운 길 열다

—연길시장애인연합회 1인 미디어 AI 창작 양성반 개최



최근 연길시장애인연합회는 연길 시장에인창업부화기지에서 2025년 장애인 1인 미디어 AI 창작 양성반을 개최하여 장애인 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양성반은 7일간 진행되었는데 장애인들의 직업기능 수준을 한층 더 제고시키고 장애인들이 새로운 업태 발전을 더 잘 리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이번 양성반에서 기지의 지도교사들은 1인 미디어 운영과 인터넷 마케팅을 기반으로 한 AI 동영상 창작 및 AI 그래픽 응용을 착안점으로 강의를 했는데 수강생들이 사진과 비디오 생성의 기본 방법을 익히고 틱톡, 쇼홍수(小红书) 등 플랫폼의 게시 규칙 등을 결합하고 AI 도구를 활용하여 계정 설정, 작품 게시, 미니 동영상 편집 및 그래픽 창작을 더 잘 완성하고 실용적인 기술을 증진하도록 조력했다.

강습 과정에서 기지는 연길지역의 MCN 써비스기구를 특별 초청

하여 현장 지도를 했는데 사례 분석의 형태로 AI 창작과 현지 단계 구매 프로젝트 영상 발표(本地团购项目视频发布)를 결합하도록 지도했다. 수강생들은 조작에 숙련되면 자신의 계정에 고품질 동영상을 발표하여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 MCN 써비스기구의 사업일군은 현장에서 운영 절차를 직접 가르치면서 심사 통과된 동영상에 대해 즉석에서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수강생들의 적극성을 크게 불려 일으켰다.

연길시장애인연합회 관련 책임자는 “다음 단계에 우리는 장애인들의 실제 수요, 능력에 결부해 더 많은 현지 상인, 기구와 협력하고 실행 가능성과 보급성을 갖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프로젝트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 여러 민족 장애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통로를 확대하여 장애인들의 성취감과 행복감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리전기자



화룡, 국가 2급 중점보호동물 올빼미 신속히 구조

최근 화룡시자연자원및림업국은 팔가자삼림공안국 하남파출소로부터 걸려온 도움 요청 전화를 받았다. 체형이 비교적 큰 조류가 정상적인 비행을 하지 못해 자연자원및림업국 야생동물부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였다.

화룡시자연자원및림업국은 즉시 팔가자 하남파출소에 사업일군을 파견했다. 사업일군들은 자세한 관찰을 거쳐 해당 조류가 부상을 입어 비행 능력을 상실했으며 국가 2급 중점보호동물인 올빼미(鸺)임을 확인했다.

료해에 따르면 올빼미는 수리과 올빼미속(鷹科鸺属) 28종 맹금류의 통칭이다. 대표적인 종인 보통올빼미는 몸 색깔의 변화가 비교적 크다. 상체는 주로 암갈색이고 하체는 짙은 갈색 혹은 옅은 갈색이며 짙은 갈색의 가로무늬나 세로무늬가 있다. 꼬리 깃털은 옅은 회갈색을 띠고 여러 개의 짙은 갈색 가로무늬가 있으며 날 때에는 양쪽 날개가 넓고 약간 우



로 들려 옅은 ‘V’자형을 이룬다. 주로 넓은 평원, 사막, 들판, 개간된 경작지, 숲과 초원, 마을 상공을 맴

돌고 대부분 단독으로 활동하며 각종 쥐를 먹이로 하고 개구리, 도마뱀, 뱀, 산도끼, 작은 새와 대형 곤충 등

도 먹는다.

사업일군들은 올빼미에게 간단한 먹이를 주고 신속히 연길시구조중심에 옮겨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주었다. 현재 올빼미는 치료와 재활을 받고 있으며 비행 능력이 회복되면 대자연으로 방생하게 된다.

최근년간 화룡시자연자원및림업국은 생태문명 리념을 깊이 실천하고 국토복화사업을 참담게 추진하여 생태환경이 효과적으로 개선되었는데 많은 야생동물들이 관찰구역에서 서식, 번식하고 있다.

화룡시자연자원및림업국 관련 책임자는 계속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며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선전과 구조를 강화하여 화룡의 생태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리전기자

/ 사진 화룡시자연자원및림업국



안도, ‘포인트 적립 마트’로 향촌 진흥의 ‘대문명’ 이끌다

최근년간 안도에서는 포인트 적립 마트의 ‘지레대’의 힘으로 향촌 진흥의 ‘대문명’을 이끌어가고 있다.

안도현당위 선전부에 따르면 안도현 량강진에서는 ‘미가 포인트 적립 마트’를 뉴대로 자발적 환경위생 정비, 낡은 풍속 시정 및 자원봉사 참여를 동원해 광범위한 당원과 주민들이 서로 배우고 점수 평가에 참여하며 포인트를 ‘벌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촌 환경의 일신과 마을의 새로운 풍조를 실현했다. 따라서 포인트 적립 마트는 대중을 이끌고 결집시키고 격려하고 교육하는 생동감 있는 교실과 실천의 장으로 되고 있다.

“세제를 한봉지 바꿨어요.”
“나는 비누 몇개를 교환했어요.”
“적립한 포인트로 생활필수품을 교환할 수 있어서 좋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마을 활동에 참가하여 포인트를 적립해 더 많은 물건을 교환할 거예요.”

촌민들은 적립한 포인트로 바꾼 생활필수품을 손에 들고 너나없이 미소를 금지 못한다.

마트에는 수건, 세제, 휴지, 비누



적립 포인트로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교환한 촌민들

등 생활필수품들이 정연하게 진열되어있고 상품마다 대응한 적립 포인트표가 붙어있다. 촌민들은 자신이 적립한 포인트에 상응한 물건들을 고른다.

량강진은 촌간부, 촌주재 작업대 등 모두의 힘을 동원하여 마을을 돌아다

니며 적립제를 홍보하고 적립 관리 리념을 기층관리의 여러 단계와 군중들이 즐기는 다양한 활동에 융합시켜 촌민들의 참여도와 활약을 높였다. 여러 촌의 부녀주임들이 적립 마트 관리인을 맡고 있다. 2024년 이래 량강진은 12개의 ‘미가 포인트 적립 마트’

를 설립하고 40차의 비교 평가를 진행했다.

적립 마트 관리인은 적립명세공시서를 붙여 촌민들이 학습과 비교를 통해 교육을 받고 자질을 제고하며 좋은 습관을 기르고 좋은 풍조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마을 관리 조치가 더욱 실속있도록 했다. 아울러 촌민들이 봉사하는 과정에 얻는 것이 있고 얻는 과정에 자원봉사를 하도록 이끌어 공동으로 건설하고 공동으로 다스리는 향촌관리사업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했다.

량강진 관련 책임자는 “앞으로 량강진은 ‘포인트 적립 마트’의 격려 우세를 잘 발휘해 적립 포인트 교환 모델을 혁신하고 장기 운영 기제를 보완함으로써 촌민들이 적극적으로 마을의 다양한 공공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고 향촌 관리 새로운 동력을 활성화시켜 포인트 적립 마트의 ‘지레대’의 힘으로 향촌 진흥의 ‘대문명’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리전기자

/ 사진 안도현당위 선전부



대련 조선족 로인들 ‘새시대 로인사업 좌담회’ 소집



2월 28일,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는 대련시조선족문화예술관에서 ‘새시대 로인사업 발전 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는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해 로인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을 취지로 하였다.

협회의 비서장 석금해가 사회를 맡은 좌담회에 17명 주요 성원이 참가한 가운데 최인숙이 지난해의 재무결산에 관한 보고를 하고 박정애 회장이 2025년 활동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새로운 한해 로인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데 관한 주제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감정자분회의 하순길 회장은 출국 및 사망하는 로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입 회원들을 적극 받아들여 현재 회원수가 64명으로 늘어난 상황을 이야기하고 중산분회의 최순희 회장은 로인들의 경직된 사유방식을 바로잡아줄 데 대해 발언했으며 동성분회 한성일 회장은 자체의 힘으로

약기와 무용복을 갖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지난해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한해 사업에 대한 건의를 제기했다.

총화발언에서 협회 리사장 김덕주는 협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을 해준 대련시조선족기업가협회, 월덕옥타대련지회, 대련한국인상회, 대련연변상회, 대련조선족골프협회, 연변대학 대련학우회와 로인협회총회 및 여러 분회 책임자들 그리고 최홍근, 김태욱, 전은화, 최인숙, 오영숙 등 로인들에게 감사의 표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로인들의 경직되고 틀어지 주제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좌담회에 참가한 리사회 성원들은 바야흐로 다가오는 3.8절 경축행사를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 석양,

리삼민특약기자

